

영암군, 상춘객 맞이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오는 10일까지 군서면 왕인박사 유적지서 개최 농가소득 올리기 위해 군농협 연합사업단과 추진

영암군에서는 벚꽃이 만개하여 봄 향기가 가득한 4월 2일부터 10일까지 군서면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우수 농특산물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왕인문화축제가 2년 연속 연기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벚꽃길을 통제했으나, 최근 정부 방역지침 완화 등으로 벚꽃길을 찾는 상춘객이 지난 2일~3일까지 15만명이 찾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상춘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영암군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전

시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군농협 연합사업단과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고구마, 무화과 쌀빵, 방울 토마토, 딸기, 화훼, 농산물 가공품 등 6개 업체와 50여종의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상춘객이 대기 물려 일부 품목이 개장 2시간만에 품절되어 농가에게 웃음꽃을 선사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이번 직거래 장터는 영암을 찾는 상춘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소비 동향에

맞는 소비 촉진 활동을 펼쳐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무단점유 국유재산 매각...주민 재산권 보호 총력

함평군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6일 "함평천지 전통시장 인근 상가 및 주택에 포함된 국유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매각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후 된 상가·주택을 신·개축하고 싶어도 국유재산 토지가 포함돼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6월 행정목적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포함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했다.

또한 무단점유자 14명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관리 이관을 완료했다.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으로, 4월중 건축주에게 부과된 매각대금 납부 통지가 완료되면 5월경 최종 매각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용도폐지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목포시, 통합부채 대폭 감소로 재정건전성 향상

대양산단 분양 활성화에 따라 지방채 600억원 조기 상환

목포시가 시 재정 상황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입장을 표명했다.

목포시의 4월 현재 통합부채는 2,684억원이다. 오는 5월 300억원을 상환하면 2,384억원으로 줄어드는데 이는 2018년 7월 4,007억원과 비교하면 40.5%가 감소한 수치다.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에 최종적으로 부

담의무가 있는 부채로 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모든 부채를 통합한 것이다. 부채 종류에는 지방채, 국비부담 부채, 복식부기상 부채 등이 있다.

목포시의 경우 통합부채는 목포시, 출자기관인 목포대양산단(주) 등의 부채가 포함된다. 지방채는 대양산단 지방채, 국비부담 부채는

BTL 임대료, 복식부기상 부채는 산정근린공원 일시보관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있다.

시 재정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를 샀던 대양산단 지방채는 대양산단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800억원 중 200억원을 지난해 조기 상환했다. 이어 올해 2회 추경에 상환액 400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3월 100억원을 상환했고, 오는 5월 추가로 30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양산단 지방채는 2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매각 대금 등으로 상환할 예정이어서 대양산단 조성과 관련된 부채는 올해 안으로 모두 해소된다.

대양산단(주)가 발행했던 금융채무 2,720억원의 지난 4월 잔액 250억원을 상환함에 따라 모두 해소됐다.

이 밖에 민선 7기 이전 발행했던 국제축구센터, 양을산터널 등 지방채 277억원 전액을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매년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등을 통해 남은 지방채도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영광군, 민원담당공무원 마음건강 챙긴다

영광군은 지난달 23일부터 분청 및 읍·면사무소 직원대상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순회 심리상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상담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받는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폭언, 폭행 등 특이 민원으로 인한 고충 해소와 회복탄력성 향상으로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영광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 상담사가 출장하여 건강확인 시스템을 이용한 혈관 건강과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심리지원 관련 척도(우울 검진 등)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임형표 종합민원실장은 "직원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건강하고 안정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군, 청소행정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박차

보수 인상, 휴게시설 확충, 안전용품 배부 등 처우개선 노력



신안군이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행정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노사합의를 통해 '2022년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했고, 4월 5일까지 청소행정 종사자 87명에게 계절별 근무복, 안전모, 보안경, 절단방지장갑 등 10종의 보호구를 지급했다.

군은 환경미화원 등이 작업 특성상 먼지나 악취, 교통사고,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 ▷주간작업 및 보호구 착용 근무 ▷안전보건교육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정소차량 사각지대 방지장치 부착 ▷다목적 전동운반차 보급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장산·안좌·도초 등 3개면에 휴게시설을 신축했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신활력플러스 리포터 2기 발대식 개최

무안군은 최근 초당대학교에서 무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과 초당대 산학협력단이 지역산업 진흥과 공동발전 도모를 위한 상호교류 협력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신활력플러스 리포터(이하 신플포터) 2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명진),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영송), 무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배성태) 등 관계자 40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양 기관 업무 협약식과 신플포터 2기 위촉장 수여식, 전문강사 초빙 SNS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신플포터 2기로 위촉된 초당대학교 호로초리학과 학생들은 오는 6월까지 무안군 관내 고구마 농가와 자매결연을 맺어 고구마 체험 및 농가 홍보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전회 농정과장은 "무안 고구마를 활용한 새로운 레시피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 수행 활동을 SNS에 게시해 무안 고구마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